

저작관련 요소분석을 통한 폭소노미 태그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LibraryThing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ibraryThing Folksonomy Tags through the Analysis of Elements related with Work

김동숙(Dong-Suk Kim)*

정연경(Yeon-Kyoung Chung)**

초 록

본 연구에서는 FRBR의 저작 단위로 태그(tag)가 부여되고 있는 LibraryThing에 나타난 태그를 활용하여, 소설(Fiction) 분야 태그들의 특성, 패턴의 형식적인 측면과 동시에 태그의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저작의 서지사항 기술 용어, LCSH 용어와 비교하여 관련 정도를 파악하였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태그의 출처는 어디인지, 저작의 어떤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지, 저작과 연계하여 태그의 용어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설이란 한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소설만이 가지는 특성인 소설의 3요소(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인물, 사건, 배경)를 반영한 태그를 파악하여, 향후 소설 정보의 조직 및 검색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색인어를 보완하는 폭소노미 태그의 역할을 규명하고 태그시스템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perties of the tags used in the fiction genre, the structural aspect of the patterns and the contents of the tags by utilizing LibraryThing, where the tags are assigned in work units of FRBR.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in terms of the level of association between the descriptive terms in bibliography and LCSH term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sources of the tags not included in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s or LCSHs, what aspects of work they represented, and the terms used as tags in relation to the work. By restricting the study to a single genre, a number of tags tha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fiction (three elements of the fiction which are theme, plot, style and three elements of the fiction composition which are character, event, setting) were extracted. This study finds out the role of the tag making up the taxonomy and proposes a new direction for the tagging system by demonstrating the possibility of using tags as facets in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retrieval.

키워드: 폭소노미, 태그, 집단지성, 사회적 분류, 사회적 네트워킹, 소설 검색, 정보 조직
folksonomy, tag, tagger, social classification, social indexing, social tagging, social
networking, social cataloging, LibraryThing, LibraryThing for Libraries, LTFL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주제사서,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andriani@hanyang.ac.kr)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0년 2월 1일 ■ 최초심사일자: 2010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2010년 3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27(1): 41-60, 2010. [DOI:10.3743/KOSIM.2010.27.1.041]

1. 서론

Web 2.0의 등장으로 도서관에서도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최상의 서비스로 여기던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정보를 재조직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관 홍보 및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폭소노미(folksonomy)의 활용도 주목할 만하다. 점차 많은 기관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폭소노미를 활용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키워드를 선택하고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협업적 분류로 정의할 수 있다. 폭소노미는 InfoCloud Solutions사에 컨설턴트로 근무하던 Thomas Vander Wal이 Folks(민중, 대중)와 Taxonomy(분류학)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표현이다. 이용자가 입력한 태그를 통해서 정보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 의한 분류법(Folk + Order + Nomos)’이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이는 과거의 통제 어휘 중심의 디렉터리 분류체계를 벗어나 사용자가 스스로 키워드를 입력하여 태그(tag) 용어를 정하는 것이다(Smith 2004). 태그 부여는 ‘sensemaking’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용자가 아닌, 활용 후 새로운 결과물로 창출해내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Golder and Huberman 2006). 이용자의 행동양식 변화뿐만 아니라 태그를 부여하는 이용자(tagger)가 속해있는 사

회, 집단,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그가 축적됨으로써 기존의 택소노미(taxonomy)가 가져올 수 없는 여러 가치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도서관은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OPAC에서의 집단지성 구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과도기에 있는 정보조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1 선행연구

Web 2.0 개념이 도서관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용자 생성 메타데이터가 기존의 정보조직 환경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올 것이란 연구가 발표되었다. 특히, 이재윤과 이지연(2006)은 태그의 가치와 더불어 한계점을 인식하고, 무질서한 정보가 난무하지 않도록 사서의 조정과 선도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정미(2007)는 국내에서 태그를 다루는 초기 논문으로 폭소노미를 개념적으로 접근하여 전반적인 웹 정보서비스 현황을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도서관 조직 내부의 관점이 아닌 이용자 관점의 폭소노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실용적인 사용을 위해서 태그 점유율 활용,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의 개입, 태그 부여를 위한 이용자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조재인(2008)은 구체적인 폭소노미 분석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에 축적된 태그의 활용으로 보여주었다. 폭소노미 태그의 어휘상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개인적인 태그

와 사회적인 태그로 재분석하였는데, 보다 정제된 태그 부여를 위해서 태그 생성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태그를 선택할 시 참조할 수 있는 추천 태그, 연관 태그를 제시해 주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시소러스를 도입하여 태깅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성숙(2008)은 국내 대학도서관의 폭소노미의 도입과 함께 현재 무질서하고 부정확한 태그, 태그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며, 도서관 목록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통제 어휘체계와 형태적 측면에서 관계를 정립해보았다. 폭소노미 태그를 시소러스 개발 가이드라인과 비교 분석한 결과, 90% 분석기준에 부합하여 태그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향후 목록에서 태그 부여와 관련되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성숙과 정서영(2009)은 태깅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2개 대학, 3,548건의 태그 패턴과 사용빈도를 분석하였다. 주제 표현 태그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자주 사용하는 태그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다른 대부분의 태그들이 적은 횟수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먹함수 분포로 설명하였다. 또한 도서관 메타 데이터가 출처로 보이는 태그는 64.72%이며, 나머지 태그 중에서 검색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태그의 비율, 즉 집단지성 구현도는 전체 중에서 20.83%로, 아직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성희와 이형미(2009)는 문화유산 20개에 대한 태그를 수집하여 유물정보검색에서 태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태그 분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박물관 디지털 문화유산 태그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

인하였다. 이용자들이 생성한 태그가 박물관의 메타 데이터와 얼마나 다른 내용들을 많이 생산해내며, 메타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태그 중에서도 '자기 참고 태그'나 '오탈자 태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중복 태깅한 단어들을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태그로 보았다.

국외의 경우에는 태그 용어 자체의 분석(Vander 2005; Golder 2006)뿐만 아니라 실제 태깅 시스템(tagging system)을 적용한 도서관 목록시스템의 검색 효율 분석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 Weber(2006)는 실제 검색에 사용되는 LibraryThing 태그가 LCSH(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에 비해 친근하고 직설적으로 본문에서 발췌된 용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LCSH는 1인의 목록전문가에 의해 부여된 용어로서, 핵심 주제를 표현하는 대표용어, 지리명, 시대명, 저작의 장르 및 형식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Tennis(2006), Arch(2007), Noruzi(2007)는 태그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한계점으로 여겨지는 용어의 다양성 측면을 보완하여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제어인 시소러스, LCSH와의 결합 방안을 제안하였다.

Pera, Lund와 Ng(2009)은 Harold B. Lee 도서관에서 정보검색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유사어 검색 방법과 폭소노미 활용방안을 사용하는 EnLibS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정보검색 시스템에서의 높았던 검색 실패율이 감소하였고, 적합성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해졌으며, 복잡한 질의어를 처리하는 시간도 단축되었음을 밝혀내었다.

Westcott와 Lebel(2009)은 Claremont 대학의 7개 도서관이 미국 대학도서관 중 최초로 2007년 봄에 LibraryThing 태그를 도입한 사례를 밝히고 있다. LTFL(LibraryThing for Libraries)이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도서관 목록의 ISBN과 일치되는 서지의 태그를 불러와서 OPAC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를 활용한 결과, 기존의 색인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자료 찾기에 좋은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의 연구는 태그의 정의와 한계점 파악, 태그의 형식과 유형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노이즈가 제거된 일관된 태그 부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점차 태그를 도서관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국내 도서관 목록에서도 태그 부여 기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들이 관심 주제 분야에 관해 막연하게 주는 태그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목록 작업의 서지 사항과 주제명 표목과 무관하지 않음을 파악하였고, 앞으로 색인어 확충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킹 사이트로 대표적인 온라인 개인 서재 기능을 하고 있는 LibraryThing의 태그를 바탕으로 한 저작(work)에 대해 부여되는 태그의 출처를 조사해보고, 저작을 표현하는 핵심 서지사항, 주제명 외에 어떤 용어들이 부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태그의 부여 범위를 명세화해서 소설 분야의 효

율적인 정보 조직 및 검색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은 태그에 대한 문헌 연구와 실제 LibraryThing 태그 분석을 병행하였다. LibraryThing은 저작 단위로 태그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선정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09년 픽션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저작 40권, 태그 3,599개로 한정(2009년 7월 20일 수집)하였다. 도서관의 이용자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용자와 픽션이라는 한 분야로 한정할 수가 있어서 저작과 태그가 축적된 시스템으로 집단지성의 구축에 더욱 효과적인 환경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저작 단위에서 생성되는 태그를 살펴봄으로써, 한 작품을 바라보는 이용자(tagger)의 다양한 관점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색인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는 태그의 용어들은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 용어들이 태그를 부여할 시점이나 검색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태그 안에서도 픽션이란 하나의 주제 분야로 한정함에 따라 주제 분야에 따른 일관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태그를 파악하였다. 수많은 저작 중에서도 2009년의 베스트셀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는 한 저작당 평균 약 90개의 풍부한 태그들을 생성하고 있었다.

저작에 대한 서지사항 및 LCSH는 LibraryThing에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WorldCat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였다. 실제 태그의 내용 분석을 위해 간략한 서지 사항과 주제명 표목으로 이용자(tagger)

의 의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저작의 초록, 본문, 서평 등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용자가 저작에 대한 태그를 어떤 용어, 어떤 형식으로 입력하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태그 입력 시 제시어로서 활용 가능한 단어를 미리 보여주거나 목록에 축적된 풍부한 양의 태그를 노이즈(noise) 없는 효율적인 색인어로서 사용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폭소노미의 가치와 활용

2.1 폭소노미의 특징 및 한계점

과거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목록에 대한 요구를 결정하고 직접 그 요구에 맞는 목록을 만들어 내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생성해내고 있다(이정미 2007). 이용자가 저작을 어떻게 이해하여, 그들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지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결과물은 집단지성을 이루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첫째, 통제된 어휘만을 활용하는 택소노미(taxonomy)에 비해, 폭소노미는 모든 사용자의 요구를 편견 없이 반영하며, 어휘를 활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다양한 어휘를 통해 신규 용어 혹은 새로운 주제의 발생 시 전문가의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정적인 택소노미와는 상관없이, 현재의 이용자들이 늘 참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둘째, 폭소노미는 수평적 탐색이 가능하고 우연한 발견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셋째, 태그는 카테고리보다

는 키워드에 가까운 의미로서, 하나의 콘텐츠에 부여된 다양한 개념의 태그에 따라서 해당 콘텐츠가 여러 개의 주제에 분류될 수 있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복수의 접근점을 제공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도서관 OPAC에서는 이용자들의 검색에 사용한 질의어와 목록에서 설정한 색인어가 불일치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난다. 검색의 재현율이 낮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도서관 목록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웹 포털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다(Pera, Lund and Ng 2009). 그러므로 국내외 도서관에서 OPAC에 도입 중인 태깅 시스템은 기존 색인어와 검색어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이며, 도입될 경우 기존의 서지 정보와 주제명 표목에 기반을 둔 검색 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태그는 동형의의어(synonym), 다의어(polysemy), 개념 범위의 불일치(discrepancies in granularity)의 통제가 불가능하다(Golder and Huberman 2006, Noruzi 2006). 그리고 표현 형식의 다양성이 태그의 장점인 반면에 단수/복수, 대문자/소문자, 일부 특수문자 포함, 다국어, 축약 태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일관성을 해치게 된다(Mathes 2004). 또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개인적인 내용의 태그를 생성하여, 다양한 관점을 부여해 오던 폭소노미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무질서하고 부정확한 태그로 인해 태그의 품질 보장이 안 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리므로 태그가 가지는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2 LibraryThing

LibraryThing은 사서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회적 네트워킹 도구 중의 하나로 2005년 8월 29일에 Tim Spalding이 개인 서재의 목록과 도서 리스트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사회적인 목록 서비스(social cataloging)의 하나로 개발하였다. 여기서 사회적인 목록 서비스라 함은 도서나 비도서 자료 등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자료를 이용자들이 목록할 수 있도록 웹에 적용한 것으로 다중 이용자 목록 환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는 공유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고 목록을 공유하는 능력이고 둘째는 내면적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거나 메타데이터 목록의 외형적인 협조를 통해서 목록 기술의 증진이나 풍부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개인 서재의 장서를 목록하고 독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서평을 올리고 동일한 책을 가진 다른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서재 목록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들의 목록을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유사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이용자들은 서명, 저자명, 그리고 자신의 서재에 도서를 들여놓을 때 이용자가 생성한 태그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훑어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LibraryThing은 책에 대한 태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서평, 평점 등을 추가함으로써 개인 서

재를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특히 FRBR의 저작 개념 단위로 서지 정보를 묶어서 태그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LibraryThing은 2009년 9월까지 거의 4,500만 개에 가까운 도서를 920,000명의 이용자가 목록을 만들었으며 끊임없이 더 많은 도서와 이용자가 추가되고 있다. 수천만의 도서에 관한 엄청난 수의 태그는 개인들이 부여한 사회적 분류(social classification)이며, 기존의 LCSH와 같은 통제 어휘보다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어가 부여되면서, 검색 재현율을 높이는 가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그림 1 참조). Tim Spalding은 태그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 재가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지길 바라며, 이러한 도서관의 중요한 임무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LibraryThing의 사명임을 언급하였다(Ritchie 2009).

LibraryThing의 기본 특징은 Z39.50을 통해 도서관과 도서관매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도서의 자동화 목록이라는 점이다. 6개의 Amazon.com 서점이 즉각적인 데이터의 원천으로 제공되고, 도서관의 정보원은 MARC과 Dublin Core를 공급하고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anadian National Catalogue, British Library, Yale University를 포함하는 690개 이상의 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간단히 검색창에 서명, 저자명의 키워드나 ISBN을 입력하면 정보원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 안에서 원하는 정보원을 선택한 후, 필요한 목록 정보를 가져와 개인 서재에 추가하게 된다(<http://www.librarything.com/addbooks>).



〈그림 1〉 LibraryThing 시작 화면

LibraryThing은 이용자가 도서를 목록화한 다음에 그 내용을 태그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이 그 태그를 볼 수 있다. 태그는 이용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도서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다빈치 코드』를 “소설”, “쓰레기, 종교, 마리아”, “여름에 집에서”라는 각각의 태그를 각각의 이용자가 줄 수 있다. 태그는 이러한 개념 - 예를 들면, 여름에 집에서 읽을 만한 모든 책들 또는 모든 소설의 목록 - 에 따라 걸러내고 탐색하는데 특히 유용하다(<http://www.librarything.com/wiki/index.php/Tagging>).

LibraryThing은 태그를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 놓고 태그를 부여하는 규정에서 저작의 서명이나 저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면서 공통된 용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어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LibraryThing내의

combiners 그룹이 태그를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 2차 세계 대전의 경우, World War 2와 World War II를 동일하게 보고 처리하는 것과 같다.

LibraryThing은 서지 정보의 콘텐츠와 연계하여, 회원 가입을 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 서재를 꾸밀 수 있다. 방대한 양의 태그를 생성할 수 있는 태그 시스템으로서의 장점을 가지며, 태그 부여와 활용에 대한 한계를 알고 태그의 노이즈 제거 작업도 노력 중이다. 도서에 관해 알고자 하며 도서가 어떻게 연결되고 최고의 추천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도서에 관한 질적 데이터의 사회적 정보가 가득하다. 누가 그 책을 갖고 그 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태그, 서평, 대화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도서에 관심을 갖고 도서에 관해 독자와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서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LibraryThing은 이용자들이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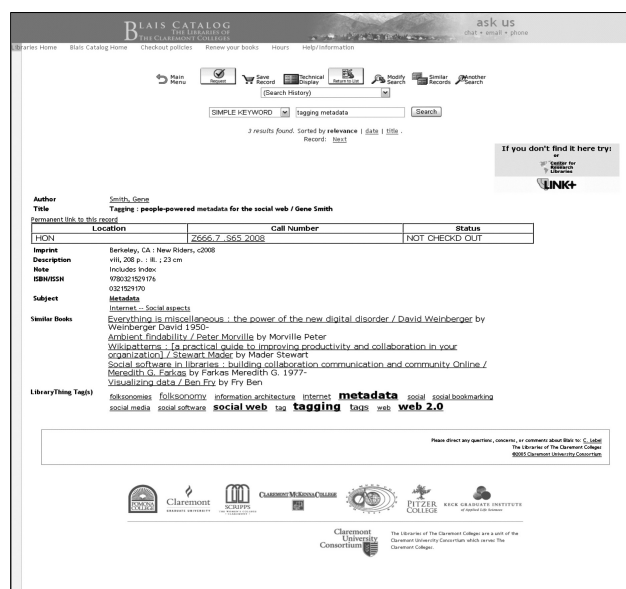
소노미 방식으로 구축한 온라인 목록을 바탕으로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해 대중의 지성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2009년 1월 21일에 Bowker, AquaBrowser, ProQuest, Serials Solutions, RefWorks를 소유한 Cambridge Information Group(CIG)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Bowker가 LibraryThing for Libraries의 포괄적인 배포권을 갖게 되었다(<http://www.librarything.com/blog/2009/01/librarything-ad-cigthe-deal.php>).

2.3 LibraryThing for Libraries(LTFL)

기존에 도서관 목록에 태그를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외 사례로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PennTags 서비스, 포항공대, 성균관대 등이 있다. 도서관 OPAC에 적용되어 주제명 표목을 대신하여 저작을 표현하는 방안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이나 기관에 제한받지 않고 태그를 생성해나가는 LibraryThing의 경우, 집단지성을 이루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면에서 장점을 갖는다(ACRLog 2008).

LTFL은 LibraryThing의 태그를 도서관에 도입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자료를 추천하는 기능을 활용하고자 준비된 서비스이다(DeZelar-Tiedman 2008, Wenzler 2007). 2009년 10월 당시 1,512개의 도서관에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었는데, California에 있는 Claremont College에서 최초로 LibraryThing 태그를 도서관 목록에 적용하였고, 이는 도서관 정보 검색 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다(그림 2 참조). 목록에 LTFL을 추가하면 이용자는 도서관의 장서를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훑어보고 검색하며 찾아볼 수 있다. OPAC에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템플릿에 HTML



〈그림 2〉 LibraryThing for Claremont college

한두 줄을 추가하는 정도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목록 강화 패키지에서는 주제명표목과 함께 하는 태그를 볼 수 있으며 그 안의 추천(Recommendations)에서는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추천받은” 또는 “유사한” 질적으로 우수한 도서를 보여준다. 태그 훑어보기(Tag browsing)에서는 이용자에게 태그로 도서를 훑어보고 검색할 수 있도록 용통성과 힘을 제공해준다. 끝으로 다른 판 사항과 번역판(Other editions and translations)에서는 FRBR과 같은 저작에서 동일한 저작의 관련 판 사항과 번역판을 연결해준다. 5천9백만 태그와 1천 6백만 ISBN, 27만5천개의 다른 판과 번역판 정보를 갖고 점차 많은 도서관은 간단한 기술로서 LTFL을 구현하고, OPAC의 기능 개선을 넘어 혁신적인 도서관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다 (<http://www.librarything.com/forlibraries/>).

3. LibraryThing 태그의 분석

2009년 7월 20일에 LibraryThing에서 2009년 픽션 분야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저작 40권으로부터 수집한 태그는 총 3,599개로 그 구성은 <표 1>과 같다. 크게 개인적 태그와 사회적 태그, 판단 불가 태그로 나누었는데, 판단 불가 태그는 개개인이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번호나 기호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 태그와는 구분을 하여 판단 불가 태그라고 하였으며, 사회적 태그는 서지사항이나 주제명과 같은 책의 형태나 내용에 관한 기술과 관련된 태그로 보았다. 판단 불가 태그를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

는 태그로 각각 부여하였다고 보면, 광의의 의미에서 개인적 태그라고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서지사항이나 주제명과 관련이 되는 사회적 태그가 68.4%에 달했다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서지사항과 주제명, 소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내용을 태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태그 분석은 이용자들이 보다 중요시 여기는 서지 기술 요소나 LCSH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는 주제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1 태그의 패턴

Angus, Thelwall와 Stuart(2008), 이성숙, 정서영(2009)은 태그의 전형적인 패턴이 먹함수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LibraryThing의 태그에서도 <표 2>에서와 같이 75.9%(2,731건)의 태그가 1인의 개별 이용자(tagger) 각각이 부여한 것이었다.

2인에 의해 부여된 태그는 11%(397건), 3인이 동시에 부여한 태그는 4.7%(170건), 4인이 동시에 부여한 태그는 2.3%(86건), 5인이 동시에 부여한 태그는 1.4%(49건), 6인이 동시에 부여한 태그는 0.1%(34건)로 95.4%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4.6%의 태그는 많은 수의 이용자가 함께 부여한 태그로 이러한 다빈도 용어에 대한 가치는 향후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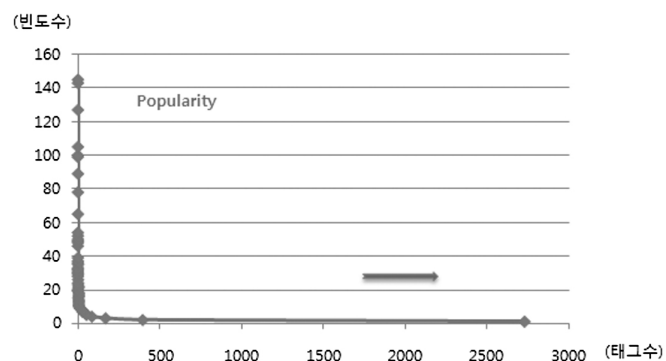
이용자의 수와 해당 태그의 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이 파레토의 법칙(Pareto's Law)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20%의 태그가 자료를 표현하는 태그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대략 2-3인 이상

〈표 1〉 태그의 구성 요소

요소		세부 사항 및 예시			건수(%)
1. 개인적 태그		wishlist, to read next, on-hold-list at library, wait for paperback, ordered, own, need to read, eventually discover...			899(25%)
2. 사회적 태그	서지기술 요소	서명, 출판사항, 판 사항, 장르/형식, 자료형태, 저자사항, ISBN, OCLC No, 형태사항, 다른 서명 등			675(18.8%)
	소설 고유 요소	소설 3요소	주제	LCSH	605(16.8%)
				비LCSH	405(11.2%)
		소설 구성 3요소	구 성		0
			문 제		0
			인 물		431(12%)
			사 건		52(1.4%)
			배 경		293(8.2%)
3. 판단 불가 태그		a-/4(1), lt(1), #16(1), #8(1), //(1), Z:I-N(1), #15(1), *** (1), 365(1), 07(1), #3(2), #3(1), z:i-n(1), ** (1), 1°, #18(1), lp(1), Th*, MR* 09...			239(6.6%)
총계					3,599(100%)

〈표 2〉 이용자(tagger)의 수와 태그의 수

이용자	태그수	이용자	태그수	이용자	태그수	이용자	태그수	이용자	태그수
1	2731	11	5	21	34	33	1	54	1
2	397	12	5	22	1	35	2	65	1
3	170	13	5	23	1	36	1	78	1
4	86	14	5	24	1	37	1	89	1
5	49	15	2	26	1	39	1	99	1
6	34	16	5	28	1	46	1	100	1
7	23	17	5	29	1	48	1	105	1
8	18	18	6	30	1	49	1	127	1
9	9	19	1	31	1	50	1	143	1
10	6	20	1	32	1	52	1	145	1



〈그림 3〉 태그의 수와 이용자(tagger)의 사용빈도

의 대중이 동의한 태그가 핵심 20%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태그의 집합이 성숙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다수 대중의 참여로 인해 충분한 태그가 생성되면 핵심 20%를 형성하는 다빈도 태그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기타 80%의 태그는 Web 2.0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롱 테일의 법칙(Long Tail Theory)에서 '긴 꼬리'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사소한 다수(80%)가 핵심 소수(20%)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음을 LibraryThing의 태깅 시스템에서도 보여주었다.

3.2 태그의 형태

LibraryThing 태그 3,599개의 품사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명사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7.6%의 복합명사까지 합하여 3분의 2이상은 기존의 색인어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명사의 형태와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명사구, 형용사구 등을 포함한 구(Phrase) 형태가 24%로 두 번째를 이었다. 이는 형용사나 동사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개인의 감정, 인식, 상황을 여러 단어의 묶음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물론 구 단위 중에서도 의미가 없는 개인적인 태그도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주제나 상황,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도 <표 4>에서와 같이 볼 수 있었다. 주제나 내용의 일부를 표현하기도 하고, 주제명 색인에서 진보된 상세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개인적인 태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소유, 경험, 계획, 감정 등을 보여주는 예가 대부분이었다.

<표 3> 태그의 유형

유형	태그 수	비율
숫자	180	5%
명사	2,159	60%
복합명사	274	7.6%
구(phrase)	864	24%
형용사	71	2%
동사	51	1.4%
전체	3,599	100%

숫자도 5%라는 낮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출판년도, 자신이 책을 읽은 시기 등을 기록하여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태그 형태(오자, 탈자, 중복, 번역 표기)로 인해 같은 의미이면서도 동일하게 여겨지지 못한 태그들은 기존의 텍소노미에 적응된 이용자에게는 무질서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정보 검색 시스템 속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처리 과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컴퓨터가 인식하여 정보 검색에 활용되는 현재의 기술은 하나의 단어일 경우에만 가능해서 전거파일이나 LCSH와 같은 통제어를 활용하여 노이즈를 줄이는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Steel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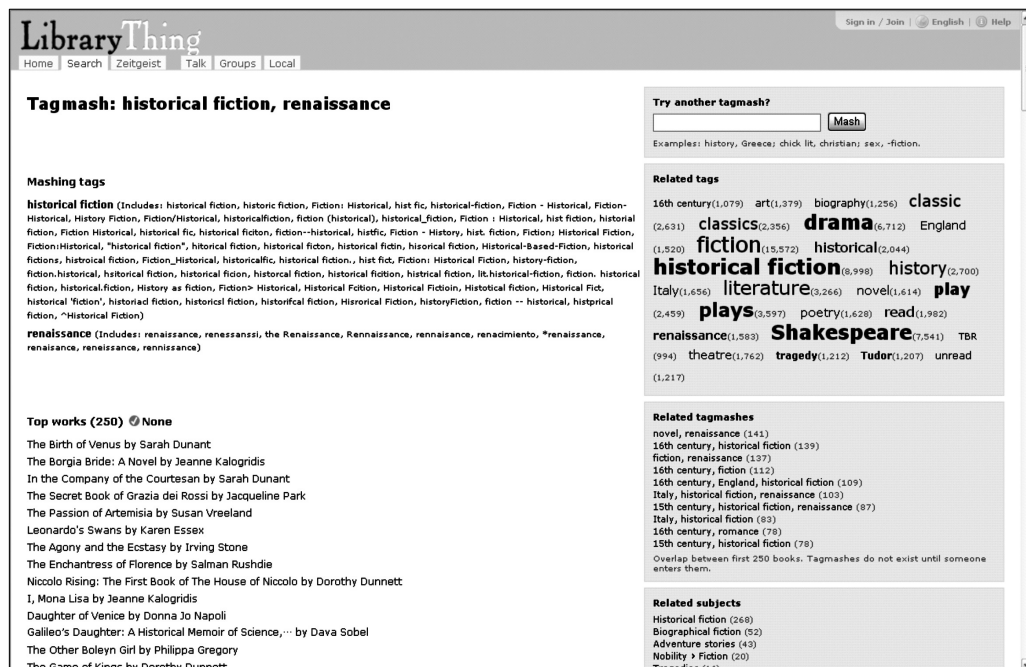
<표 4> 구(phrase) 태그 예제

주제를 표현하는 phrase tag
- getting killed but with no sign of murder
- dedication to wildlife
- romantic suspense
주제를 표현하고 있지 않는 phrase tag
- @on-hold-list-at-library
- Early Reviewer
- Need to Read
- Amazon preorder
- From publicist for review
- Waste of time: too coincidental and does not make sense

예를 들자면, pop, soda, coke, soft drink, soda pop 등의 유사 동의어는 전거파일을 사용하여 용어를 결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용어 그 자체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하여 WordNet 활용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의어(Polysemy) 처리에 좋은 방안이다. LibraryThing의 경우, <그림 4>처럼 Tagmash 기능을 두어 다중이 용어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Tagmash는 반자동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태그의 교차점(intersections of tags) 역할을 하는데 태그 관심 그룹에서 하나의 태그로 통합될 수 있는 태그들을 수집, 분석하여 공개하는 기능을 말한다. 해당 저작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이용자가 태그를 하나의 덩어리로 모으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생성 여부가 달려 있지만,

모호한 의미를 가진 태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주제 분류와 태그의 차이를 줄이고 있는데, Combiners가 정비하는 경우에도, 축약어와 단수와 복수의 병합은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축약의 의미는 태그를 만든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태그에 대해서는 되도록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unread와 to be read를 구분하고 movies와 cinema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구분하는 것과 같다(<http://www.librarything.com/blog/2007/07/tagmash.php>).



〈그림 4〉 Tagmash in LibraryThing

<http://www.librarything.com/tag/historical+fiction.+renaissance>

3.3 태그의 내용

3.3.1 개인적인 태그 vs. 사회적인 태그

Zollar(2007)는 태깅시스템에서 태그를 부여하는 이용자의 목적을 의견 표출(opinion expression), 행동 표현(performance), 사회와의 협력(collaboration), 의견 공유(activism)로 보았다.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터넷 환경이 제안되고, 그 안에서의 아이템(도서, 사진, 웹사이트 등)에 대한 태그 부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담겨있다고 보았다. 반면 태그가 이용자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을 두어 부여되므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용어나 특정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정보를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Vander Wal(2005)은 광의의 폭소노미(broad folksonomy)를 사회화된 태그로, 협의의 폭소노미(narrow folksonomy)를 사회화되지 못한 태그로 나누었다. 개인적인 태그는 사회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태그로서, 현재는 사용가능성이 적지만, 그 양이 축적되고 시간이 흐르면 서 태그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색인으로 활용될 것이 기대되는 수준의 용어들이며 사용자로 하여금 다른 사용자들의 행동양식 등을 알아볼 수 있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이강표 외 2007).

이렇게 태그의 사회화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표 5>와 같은 예로 나눌 수 있었다.

<표 5> 개인적 태그 vs. 사회적인 태그

개인적인 태그	사회적인 태그
to borrow, unread, to read, owned, wishlist, didn't like	suspense, thriller, terrorism, Hannah Wensen, Minnesota, Regan Reilly

하지만 LibraryThing은 온라인 개인 서재의 특성상, 전체 분석 태그 중 899건(25%)이 개인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는 태그들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판단 불가 태그로 분류된 239건(6.6%)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작에 대한 주제 표현이 강조되는 태그들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하고, 도서관 OPAC에서도 개인적인 태그와 사회적인 태그를 구별하여 분석, 적용함으로써 태그의 검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3.2 태그의 출처 분석

3.3.2.1 서지사항 기술용어와의 비교

분석 대상 3,599건의 태그 중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 899건의 태그와 판단 불가인 239건의 태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2,461건의 태그에 대하여 저작의 서지사항과의 연관정도를 분석하였다. 각 태그는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작의 서지사항에 등장하는 항목들(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 형식, 장르 등)과 비교하여 그 출처를 분석하였다. 675건(25%)의 태그가 서지사항에도 존재하는 태그로서 핵심 내용을 가진 용어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서지사항에 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태그로 채택되어 이용자에 의해 부여되고 있었다. 저작에서 제목과 저자, 출판년/월, 장르는 필수적인 요소

〈표 6〉 서지 사항과 연계한 태그의 예

서지 사항	태그
Title: The Fixer Upper Author: Mary Kay Andrews Publisher: New York: Harper, 2009. Edition/Format: Book: Fiction: English: 1st ed. Genre/Form: Love stories. Material Type: Fiction Document Type: Book ISBN: 9780060837389 OCLC Number: 262886342 Description: 422 p.: 24 cm.	2009, 7-09, 7/09, 7/2009, adult, adult books, Adult Fiction , advance copy, Andrews , At Greene Public Library, atlanta references, bestseller, booksmack pre pub, 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chick lit, conservation, contemporary fiction , deception, family, fiction , flipping, forthcoming books, Georgia, Guthrie, house restoration, houses, inscribed, July , July 2009 , july09 , Kindle, lawyers, library book, literature(Southern), LJ, lobbyist, love , love story , MR * 09, new books, New for July 2009, NYR, OML, own but haven't read, political corruption, read in 2009, restoration, romance, small town, southern, Southern Challenge 2009, southern fiction, TBR, Washington DC, yet to read, young women

로서 태그에서도 기본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3.3.2.2 LCSH와의 비교

일반적으로 한 저작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서지사항과 함께 미의회 도서관 주제명표목까지 다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명표목을 별개로 다루었는데 태깅 용어 자체가 이용자의 인지 구조로부터 도출된 것이므로 텍소노미가 제공하지 못하는 이용자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색인이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Steele(2009)은 태깅 부여에 있어 주제명 표목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태그는 특정 핵심 키워드 추출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고, 반면 주제명표목은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는 용어가 선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태그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Schwartz(2008)가 통제어휘의 제한된 용어 선정과 태그의 연관검색 확대 효과가 OPAC의 검색 개선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분석한 태그 중에서 605건(16.8%)은 주제

명표목과 동일한 태그가 추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주제명 표목과 동의어, 유사어, 포함 관계에 있는 용어가 종종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태그에 들어있는 Canada는 Montreal(Québec)의 지리상 상위명이며, mystery, thriller는 crime fiction에서 의미상 파생된 용어들이다. 이렇게 주제 관련 용어로 파악된 건수는 405건(11.2%)으로, 주제명표목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용어들이 자유롭게 추가되고 있었다. 주제명표목은 간결하게 핵심을 담은 용어로서의 장점을 갖지만 최신의 용어나 새로운 지식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최신의 정보가 즉시 반영되고 있는 태그로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한 저작의 주제를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태그는 주제명표목과 그 이상의 관련 용어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풍부한 용어풀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제명 표목을 기본으로 하는 태그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태그를 통한 주제명표목 보완 작업이 가능하며 필요하다.

〈표 7〉 LCSH vs. 태그

LCSH	태그
Brennan, Temperance(Fictitious character) -- Fiction. Women forensic anthropologists -- Fiction. Women -- Crimes against -- Fiction. Sabotage -- Fiction. Chicago(Ill.) -- Fiction. Montreal(Québec) -- Fiction.	2000s, 21st century, @on-hold-list-at-library, @ToReadNext, adult, author: kathy reichs, <u>Canada</u> , crime , crime fiction , Early Reviewer, Early Reviewers June 2009, fiction , forensic anthropology , Genre: Crime , genre, forensic anthropology , June 09, <u>mystery</u> , <u>mystery series</u> , new books, pub date 2009-08, Quebec, series status: series ongoing, series: temperance brennan , status: wait for paperback, status: wish list, TBR, Temperance Brennan , Temperance Brennan Series , <u>thriller</u> , wishlist

3.3.2.3 소설 분야의 고유 요소

Smith(2008)는 주제에 따라 특정 패싯(facet)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태그를 사전에 규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옷의 여러 측면인 옷의 형태(블라우스, 스커트, 바지...), 색깔(검정, 빨강, 파랑...), 사이즈(대, 중, 소...) 등과 같이 ‘옷’이라는 아이টে임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코드로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중요한 의미 코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인 픽션(fiction)은 간략하게 허구의 이야기로서 일컬으며, 좁게는 일반적으로 ‘소설’을 지칭한다. 소설은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작가가 상상을 통하여 누가[인물], 언제, 어디서[배경], 어떻게 살아갔는가[사건]를 이야기로 엮어서[구성]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학의 대표적 장르이다.

전체 태그 중에서 1,786건(49.6%)은 소설의 요소(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인물, 사건, 배경)에 해당하는 것이었다(표 8 참조).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측면은 주제(subject)였고 다음으로는 소설 속 인물(character)에 관한 태그로 드러났다. 인물

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 작품 속에 등장하여 사건을 이끌어 가는 주체이며, 주제명 표목에서 허구 인물(fictitious character)로서 인물명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태그에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소설의 전체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물이 행동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장소와 같은 상황(setting)에 관한 태그가 많았다. 물론 역사적 시대와 지리적 장소명은 주제명 표목에서도 일부 출현하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장소가 이용자(tagger)에 의해 부여되었다. 그래서 실제 지리명을 수록하고 있는 주제명 표목이 소설에서 사용되는 추상적인 지리, 허구의 장소, 시대는 표현하기 힘든 한계점도 드러내었다.

인물과 배경뿐 아니라 극을 이끌어가는 사건은 인물들이 일으키고 겪는 행동,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를 표현한다. 그래서 실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감동을 전달받은 이용자들은 극을 이끌어가는 ‘사건’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소설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요소로서, 이용자가 저작

〈표 8〉 태그의 패싯(facet) 추출

태그	특성	요소	건수	
rediscovering childhood love / romantic suspense / wildlife refuge	소설의 3요소	주제		1,010
해당 없음		구성	-	0
해당 없음		문체	-	0
Doreen Beale / Jacqueline Winspear / shell-shocked veterans / Masai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431
chemical warfare / mental illness / Mostly about hunting in Africa. Turn of the 20th century. A prequel to the Courney series. Did not finish it.		사건		52
Glasgow Scotland / Interwar Years / British Empire / South Dakota		배경		293

에 부여하는 태그로 많은 활용도가 있었고, 소설의 3요소에 비해서 객관적인 태그들이었다. 소설의 3요소는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극 내부에서 조직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갖고 구성(plot)과 문체(style)를 통해 줄거리는 최종의 주제(subject)를 전달하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제를 표현하는 태그는 1,010건이며, 반면 구성과 문체에 관한 태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태그를 부여하는 동기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인보다는 저작에 대한 주제 파악이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4. 결론 및 제언

폭소노미는 이용자의 개인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콘텐츠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태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부여하던 텍소노미와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기존의 도서관은 주제명표목표나 시소르스를 이용

해 내용의 주제를 색인해 왔고, 이는 사서 혹은 전문 색인자들이 이루어놓은 것으로서 발견가능성(findability)이 태그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태그의 패턴 분석 결과, 이용자 집단이 생성한 태그와 기존의 전문가 메타 데이터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용한 내용을 이용자가 태깅한 경우, 이 태그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검색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폭소노미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LibraryThing이라는 온라인 개인 목록의 영어로 된 태그 3,599건을 분석하였다. 아직 국내에는 LibraryThing과 같은 활발한 social cataloging 선두주자가 없어서 사회적인 네트워킹으로만 여겨질 수도 있는 LibraryThing의 태그가 도서관에 도입되는 사례가 놀라게 받아들여질 뿐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넘게 대중이 축적한 정보는 일개의 도서관, 기관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집단지성의 결과물을 LibraryThing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영어로 된 태그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법적 형태 분석에는 한계가 있겠지

만 그 내용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이용자는 세계 어느 곳이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태그 3,599건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이용자에 의해 조직된 태그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텍소노미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저작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포함하는 용어들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었다.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태깅하는 용어는 주제어, 저자, 장르, 문학 형식을 나타내는 용어였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자주 부여하는 인기 태그는 검색 시에도 자주 활용될 것으로 여겨지며, 인기 지수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순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단 한사람이 부여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태그(75.9%)도 '롱테일의 법칙'을 따라 태그의 가치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의미는 적지 않다.

둘째, 저작의 기본 정보인 서지사항과 주제명 표목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태그에서 발견되었다. 저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주제, 저자, 서명 등의 서지사항 추출요소들(35.6%)뿐만 아니라, 주제어의 유사어, 동의어, 상하위 관계어(11.2%)도 적지 않게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사전에 전거파일이나 WordNet과 같은 시소러스를 통해 태그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셋째, 태그가 지니는 가치는 서지사항, 주제명표목에 나타나지 않는 의미상 관련 있는 용어의 출현과 소설이라는 장르 특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에 관한 용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색인어의 범주가 상하위 관계를 지정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학문분야별 특성을 파악한 관계 반영이 중요함

을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저작 서지 기술사항에 드러나지 않는 소설의 3대 구성요소인 인물(12%), 사건(1.4%), 배경(8.2%)에 대한 태그가 많았고, 이는 태그의 후보 범주를 넓혀 실제 태그 부여 시에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픽션' 분야에만 한정하였지만, 다른 장르, 학문 분야에도 사전에 예상 가능한 패스트 요소를 생각해 본 후에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실제 OPAC에 태그를 도입하는 도서관이라면 태깅 시스템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화되지 못한 개인적인 내용의 태그는 실제 주제 검색 시에는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개인적인 태그 899건(25%)과 판단불가태그 239건(6.6%)은 태그의 양만 방대하게 늘릴 뿐 해당 저작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제공해서 모아진 다량의 태그도 중요하지만, 그 태그를 활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서관들은 태그의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함께 도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적의 태그 부여는 형태적으로는 다양성을 지양하고, 내용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같은 의미 내에서는 이형이 부여되지 못하게 하고,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태그의 장점과 주제명표목의 장점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태그를 바탕으로 주제명표목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발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성희, 이형미. 2009. 디지털화 문화유산 태그의 패턴 및 특성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3): 171-185.
- 박민수, 엄해영, 전기철. 2003. 『현대문학의 이해』. 서울: 느티나무.
- 박철휘. 2009. 『문학이론입문』. 서울: 형설.
- 이강표, 김두남, 김형주. 2007. 웹2.0 환경에서의 태깅기술 동향. 『정보과학회지』, 25(10): 36-42.
- 이성숙. 2008. 대학도서관 폭소노미 태그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463-480.
- 이성숙, 정서영. 2009. 국내 도서관 폭소노미 태그의 일반적 패턴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37-150.
- 이재운, 이지연. 2006. 이용자 생성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7(3): 1-24.
- 이정미. 2007. 폭소노미의 개념적 접근과 웹 정보 서비스에의 적용.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141-159.
- 조재인. 2008. 학술정보서비스의 폭소노미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95-112.
- ACRLog. [online]. [cited 2009.7.12].
 <<http://acrlog.org/2008/03/08/library-thing-for-academic-libraries/>>.
- Angus, E., M. Thelwall, and D. Stuart. 2008. "General patterns of tag usage among university groups in Flickr." *Online Information Review*, 32(1): 89-101.
- Arch, X. 2007. "Creating the academic library folksonomy: Put social tagging to work at your institu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68(2): 80-81.
- Blachly, A. 2006. "Tagging meets subject heading" In Thingology Blog, May 14, 2006. [online]. [cited 2009.9.20].
 <<http://www.librarything.com/thingology/2006/05/tagging-meets-subject-headings.php>>.
- DeZelar-Tiedman, C. 2008. "Doing the Library-Thing™ in an academic library catalog."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ublin Core and Metadata Applications 2008*, 211.
- Golder, S. A., and B. A. Huberman. 2006. "Usage patterns of collaborative tagging system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2(2): 198-208.
- Hider, P. 2009. "A comparison between the RDA taxonomies and end-user categorizations of content and carrier."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7(6): 544-560.
- Hvass, A. 2008. "Cataloguing with Library-Thing: as easy as 1, 2, 3!" *Library Hi Tech News*, 25(10): 5-7.
- Kipp, M. and D. G. Campbell. 2006. "Patterns and inconsistencies in collaborative

- tagging systems: An examination of tagging practice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3(1): 1-18.
- LibraryThing. [online]. [cited 2009.8.22].
〈<http://www.librarything.com/addbooks/>〉.
- LibraryThing. [online]. [cited 2009.10.13].
〈<http://www.librarything.com/groups/combiners>〉.
- LibraryThing. [online]. [cited 2009.10.13].
〈<http://www.librarything.es/concepts#works/thingology>〉.
- LibraryThing Blog. [online]. [cited 2009.10.2].
〈<http://www.librarything.com/blog/2009/01/librarything-and-cigthe-deal.php>〉.
- LibraryThing Blog. [online]. [cited 2009.10.2].
〈<http://www.librarything.com/blog/2007/07/tagmash.php>〉.
- LibraryThing Thingology Blog. [online]. [cited 2009.11.9].
〈<http://www.librarything.com/thingology/2007/07/tagmash-book-tagging-grows-up.php>〉.
- LibraryThing's Wiki. [online]. [cited 2009.10.15].
〈<http://www.librarything.com/wiki/index.php/Tagging>〉.
- Mathes, A. 2004. "Folksonomies-cooperative classifica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shared metadata," in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online]. [cited 2009.10.16].
〈<http://www.adammathes.com/academic/computer-mediated-communication/folksonomies.html>〉.
- Mendes, L. H., J. Quinonez-Skinner, D. Skaggs. 2009. "Subjecting the catalog to tagging." *Library Hi Tech*, 27(1): 30-41.
- Morrison, P. J. 2007. "Why are they tagging, and why do we want them to?"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4(1): 12-5.
- Neal, D. 2007. "Folksonomies and image tagging: Seeing the futur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4(1): 7-11.
- Noruzi, A. 2006. "Folksonomies:(Un) Controlled Vocabulary? Alireza Noruzi." *Knowledge Organization*, 33(4): 199-203.
- Noruzi, A. 2007. "Folksonomies: Why do we need controlled vocabulary?" in *Webology*, 4(2) [online]. [cited 2009.9.20].
〈<http://www.webology.ir/2007/v4n2/editorial12.html>〉.
- Pera, Maria S., William Lund, & Yiu-Kai Ng. 2009. "A sophisticated library search strategy using folksonomies and similarity match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0(7): 1392-1406.
- Personal InfoCloud. [online]. [cited 2009.8.29].

- 〈http://www.personalinfocloud.com/2005/02/explaining_and_.html〉.
- Ritchie, A. 2009. "LibraryThing: An interview with Tim spalding." *Crossroads*, 15(4): 2.
- Schwartz, C. 2008. "Thesauri and facets and tags, oh my! A look at three decades in subject analysis." *Library Trends*, 56(4): 830-842.
- Smith, G. 2004. "Folksonomy: Social classification." in *Atomiq*, Aug 3, 2004. [online]. [cited 2009.10.4]. 〈http://atomiq.org/archives/2004/08/folksonomy_social_classification.html〉.
- Smith, G. 2008. *Tagging: Powered metadata for the social web*. Berkeley, CA: New Riders.
- Steele, T. 2009. "The new cooperative cataloging." *Library Hi Tech*, 27(1): 68-77.
- Tennis, J. T. 2006. "Social tagging and the next steps for indexing." in *Proceedings 17th SIG/CR Classification Research Workshop*. [online]. [cited 2009.9.14]. 〈<http://ist.sir.arizona.edu/1726>〉.
- Vander Wal, T. 2005. Folksonomy definition and Wikipedia. [online]. [cited 2009.8.20]. 〈<http://www.vanderwal.net/random/entrysel.php?blog=1750>〉.
- Weber, J. "Folksonomy and controlled vocabulary in LibraryThing." In Jonathan Weber Bolg. [online]. [cited 2009.10.8]. 〈<http://jonathanweber.info/samples/2452-Folksonomy.pdf>〉.
- Wenzler, J. 2007. LibraryThing and the library catalog: Adding collective intelligence to the OPAC. in a workshop on next generation libraries CARL NITIG, Sep 7. [online]. [cited 2009.10.15]. 〈<http://online.sfsu.edu/~jwenzler/research/LTFL.pdf>〉.
- Westcott, J., A. Chappell, and C. Lebel, 2009. "LibraryThing for libraries at Claremont." *Library Hi Tech*, 27(1): 78-81.
- Zollers, A. 2007. "Emerging motivations for tagging: Expression, performance, and activism." *WWW 2007*, Banff, Canada, May 8-12. [online]. [cited 2009.9.25].